

**TV**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국토부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사랑했나봐>	05 KBC 뉴스지금 30 모닝와이드 3부
8 00 다섯남자의 오메니 50 신문으로 보는 세상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담신의 여자>
9 40 그 여자 그 남자(재)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삼성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50 논설주간 세상보기 황충택의 눈을 떠요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빨간 자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00 스카우트(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월화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재)	00 브리보 멋진 인생 20 장애인 희망 프로젝트 <함께사는 세상>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뉴스현장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장애인 희망 프로젝트 <함께사는 세상>	00 SBS 12뉴스 30 KBC열린토론회(재)
1 0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걸작선 <가시나무새>(재)		10 MBC 넷워킹특선 <동>	30 벤자민의 맛있는 여행
2 10 김광현의 텃밭명령	00 KBS 뉴스 10 집중인터뷰 이.사.림(재)	10 세계는 지금(재)	00 MBC 2시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코웨이 보인다(광주)
3 30 이인경의 직언직설	00 콘서트 필2 55 아름다운 사라(재)	0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0 KBS 뉴스타임 35 후토스 하늘을 나는 집(재)	00 MBC 3시 경제뉴스 10 키즈 사이언스 베스트	10 우리아가기가 달라졌어요
4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KBS 오늘을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세상 강원>	00 외골와글 꼬꼬곰(재) 30 TV유치원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키즈 CSI 과학수사대	00 아이엠 뽀니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구름방 30 100년의 가게(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30 생방송투데이 1~2부
6 20 뉴스 와이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20 신나군	
7 30 갈매까지 가보자(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거꾸로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자룡이 간다>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가족의 탄생>
8 40 웰컴 투 돈월드(재)	25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 김>	2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 50 위기탈출 넘버원	50 이야기 속 이야기 <사사학>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0 날씨와 생활 55 생활의 달인
9 5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55 창사특별기획 <마의>	00 월화드라마 <아형>
10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라인 40 방송개시 86주년 공시참관 40주년 특집 전파 1편	00 월화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	15 공감디큐 <그곳>	00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①:40 그때 그 사람(재)	40 KBS 뉴스 50 네트워크 문화특선 <이현철의 울긋불긋>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해외특별기획드라마 <초한지>	35 MBC 뉴스24 ①:05 광주 MBC 토론회뉴스 스페셜	40 나이트라인 ①:10 디류로 만나는 세계

# 유준상 “전설의 주먹”은 목숨과 바꿀 뻔한 영화”

## 제작보고회서 밝혀... 4월11일 개봉

“전설의 주먹”은 목숨과 바꿀 뻔한 영화고 정신과 영혼, 육체를 다 내준 작품입니다.”

배우 유준상은 8일 서울시내 한 영화관에서 열린 ‘전설의 주먹’ 제작보고회에서 이 영화를 찍은 소감을 이렇게 정리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에서 영화의 격투 장면을 촬영하던 중 왼쪽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됐는데도 계속 촬영을 강행해 응급실에 입원하는 사고를 겪었다.

이 영화는 강우석 감독의 신작으로, 원년에 ‘전설의 주먹’으로 불린 남자들이 중년이 된 나이에 격투 TV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벌이는 이야기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

강 감독은 “영화를 촬영하다 응급실에 간 것이 처음이었다”며 “응급실에서 유준상의 손을 한 시간 동안 잡고 있는데, 정두홍 무술 감독이 울고 있었다. 4시간을 못 깨어나고 있다가 서울 병원에 옮겨졌는데 정말 큰일 날



황정민·유준상·이요원·윤재문·정용인·성지루(왼쪽부터)가 ‘전설의 주먹’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뻔했다. 잇을 수가 없다”고 떠올렸다.

유준상, 윤재문과 함께 영화의 주연을 맡은 황정민은 “전설의 주먹”은 천만이다”라며 흥행을 장담했다.

이번 영화에서 거친 격투 액션을 선보인 그는 액션 연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촬영을 끝내고 나서는 다시 안 한다고 했는데, 액션 연기가 매력 있고 쾌감이 있어서 몸이 움직일 수 있

는 범위 내에선 끝까지 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윤재문은 “이 영화는 내게 체력과 맷집을 길러준 작품”이라며 “정말 많이 맞았다. 나중에 (황)정민이가 못 때려줬다고 할 정도로서 정두홍 감독이 대신 때렸다. 맞다보니 시원하더라”라고 말했다.

영화는 오는 4월 11일 개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유지태 감독 ‘마이 라띠마’ 도비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배우에서 감독으로 발돋움한 유지태의 첫 장편 연출작 ‘마이 라띠마’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도빌에서 막을 내린 제15회 도빌아시아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마이 라띠마’는 지난 6일 이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상영돼 크게 호평받으며 수상

기대를 높였다. 심사위원대상은 최우수작품상에 이어 2등상에 해당하는 상이다.

심사위원장은 “‘마이 라띠마’는 예민한 소재임에도 감독의 뛰어난 통찰력으로 아름답게 표현됐다. 이 영화가 그의 첫 영화라는

게 놀랐다. 전 세계 영화팬들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심사위원대상에 선정했다”고 말했다.

유지태 감독은 “초청해준 도비영화제와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또 이 영화에 참여한 모든 배우와 스태프, 투자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1일(음 1월 30일 丙子)

<p><b>子</b> 36년생 길조가 비취고 있다. 48년생 과실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겠다. 60년생 우연한 기회가 행운으로 연결된다. 72년생 명분을 내세운 장담 속에 맹점이 보인다. 84년생 표리가 충분하니 완벽하다. 행운의 숫자 : 09, 51</p>	<p><b>午</b> 42년생 무주공산을 걷고 있는 모습이다. 54년생 무리하면서까지 억지로 행할 필요는 없다. 66년생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78년생 반복될 수 없으니 미련을 버려라. 행운의 숫자 : 72, 39</p>
<p><b>丑</b> 37년생 큰 영향을 받는 갈림길이다. 49년생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문제될 것 없다. 61년생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3년생 어려움의 규모가 상당하고 거칠다. 85년생 소폭적인 이득수가 비친다. 행운의 숫자 : 42, 35</p>	<p><b>未</b> 43년생 잘 모른다면 잠자코 있는 편이 낫다. 55년생 티끌 모아 태산이로다. 67년생 미흡함을 돌이켜 분단면 훌륭한 스승이 되리라. 79년생 당연히 잘되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여의치 않을 수도. 행운의 숫자 : 75, 67</p>
<p><b>寅</b> 38년생 유동적이나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50년생 별것 없으니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겠다. 62년생 논리적이고 명확해야 설득력을 갖게 되리라. 74년생 우연의 일치로 인해서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56, 28</p>	<p><b>申</b> 44년생 참신한 발상을 하리라. 56년생 진행하기보다는 잠시 정지해 있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68년생 신념은 가지되 중용의 도는 잃지 말라. 80년생 예상 밖의 손실이 보이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행운의 숫자 : 13, 78</p>
<p><b>卯</b> 39년생 억지를 부리는 이가 있어서 애를 먹을 것이다. 51년생 사후야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자. 63년생 여러 가지 행운이 보따리 채울 수도 있다. 75년생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하다. 행운의 숫자 : 02, 43</p>	<p><b>酉</b> 40년생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리라. 52년생 주관적인 심경의 토로에 그친다면 무의미하다. 64년생 희망 사항에 부합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 76년생 지나치게 살핀다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1, 20</p>
<p><b>辰</b> 41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보인다. 53년생 가장 절실한 일에 몰두 하자. 65년생 퇴물이하서라도 이워야 할 것이다. 77년생 자신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06</p>	<p><b>戌</b> 47년생 염연한 사실에 근거해야만 하겠다. 59년생 먼저 이해하고 배려해야 쉽게 풀어지느니라. 71년생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될 것이다. 83년생 겸손하게 기다리라. 금상첨화이노라. 행운의 숫자 : 83, 90</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EBS	
05:00 월드 뉴스 리뷰	09:15 코코몽2
05:40 영자 신문 읽기	09:30 케니말
06:00 건강한 아침	09:40 텃밭가 이야기
06:10 한국기행	09:55 지구를 지켜라
06:30 나의 성공비결	10:10 세계테마기행
07:00 곤	(2574km. 잠베지강)
07:15 꼬마거북 프랭클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07:30 마이의 모험	11:20 부모
07:45 뽀뽀뽀 뽀로로	-이름을 바꾸는 영마의 말 한마디
08:00 동동명 유치원 1~2	12:00 EBS 정오 뉴스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인	12:10 EBS 다류프라임
08:35 로보카 폴리	(10대 자살에 관한 보고서)
08:50 숲 속 친구 피파롤라	13:05 EBS 스포이스 공감 1
09:00 방구대장 뽀뽀	(We Are Her 솔루션스)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기본과 특별한 <일반사회>	11:40 <강습회의 윤리와 사상>
00:50 내신 6급 <수학(상)>	1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01:40 <지리>	13:00 탐구선 (박용우의 사회문화)
02:30 포스 <화법과 작문>	14:00 수능기출플러스 <독서>
03:20 <독서와 문법>	15:00 <문학>
04:10 <수학 1 A형>	16:00 <수학 II & 적용 & 기백>
05:00 <수학 1 B형>	17:00 <영어-독해편>
05:50 <미적분과 통계기본>	18:00 EBS 수능특강 <국어A형>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독해의 기본(1)>	20:00 <영어A형>
07:30 <Basic Grammar>	21:00 <영어B형>
08:20 탐스런 <법과 정치>	22:00 <영어B형>
09:10 <동아시아사>	23:00 <올림 I>
10:00 <경제>	23:50 지식채널e <적본과 통계>
10:50 <강봉균의 한국지리>	23:55 배움나더

<p><b>굿모닝 잉글리쉬</b></p> <p><b>That reminds me</b></p> <p><b>깜박 잊을 뻔 했다</b></p> <p>A : Have you heard from Mr.Choi? B : No, not for the last two months. A : Neither have I. Oh, that reminds me. Tom called you up about an hour ago. B : What did he say? A : He wants you to call him right back.</p> <p>A : 최선생님 소식을 들었어? B : 아니, 지난 두 달 동안 못 들었는데. A : 나도 그래. 아, 생각난다. 탐이 한 시간 전에 자네한테 전화했었어. B : 뭐라고 하든? A : 자네한테 바로 전화 달라고 했었어.</p>	<p><b>한자이야기</b></p> <p><b>殺身成仁(살신성인)</b></p> <p><b>죽일 살, 몸 신, 이를 성, 어질 인</b></p> <p>살신성인(殺身成仁)은 자신의 몸을 죽여 인(仁)을 이룬다는 뜻으로,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옳은 도리(道理)를 행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공자(孔子)가 말하길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하여 인(仁)을 해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인(仁)을 행할 뿐이다.” 라고 하였다. 도의를 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나 인덕(仁德)을 갖춘 사람은 목숨과 인(仁) 모두를 지킬 수 없을 때 생명을 아끼느라 인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인을 행한다는 것이다. 인을 닦는 일은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p> <p>(출전) &lt;논어(論語)&gt; 위령공편(衛靈公篇)</p>	<p><b>니하오 쟁구위</b></p> <p><b>喝西北風 hē xīběifēng</b></p> <p><b>서북풍을 마시다=굶주리다</b></p> <p>글자 그대로는 ‘서북풍(西北風)을 마시다’라는 의미이고, 관용어로 ‘먹을 것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중국 북방 지역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네요. 중국의 북쪽 지방은 시베리아 한류의 영향으로 겨울이면 오랜기간 서북풍이 불니다. 배고플 때 불어오는 서북풍은 추위와 굶주림이 한꺼번에 닥쳐서 훨씬 더 비참함을 갖게 됩니다. 배부를 때 부는 바람썰이야 그냥 바람이겠지만 배고플 때 불어오는 바람은 그 배고픔의 고통이 심하여 먹을 것이 없이 비참하더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또 하나의 설은 봄, 여름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겨울과 봄의 춘풍기에 서북풍 밖에 먹을 게 없다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p>	<p><b>오하요우 니혼고</b></p> <p><b>日本へ行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b></p> <p><b>일본에 간적이 있습니까</b></p> <p>A : 金さんは日本へ行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B : いいえ、一度もありません。是非行ってみました。 A : 日本語は勉強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B : はい、3年前に飛鳥ですこし勉強しました。日本へ行行く前にもっと勉強したいです。 A : 김 상은 일본에 간적이 있습니까. B : 아니요, 한번도 없습니다. 꼭 가보고 싶습니다. A : 일본어를 공부 한 적은 있습니까. B : 예, 3년 전에 아스카에서 조금 공부했습니다. 일본에 가기 전에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たことがありますか。 ~한 적이 있습니까 一度も(부정수반) 한번도 是非(꼭)+たいです. 꼭~ 하고 싶다</p>
<p>&lt;칼란스쿨·동아 외국어학원&gt; www.donga.tv ☎ 222-6253</p>	<p>&lt;대능교육&gt;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p>	<p>&lt;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gt;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lt;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gt; http://www.kjasuka.co.kr ☎ 232-1503</p>